

장애인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과의 관계

Relationship among Human Rights Awareness, Social Support and Social Integration in Disability Service Providers

김진연, 김영춘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Jin-Youn Kim(jinyeonn@hanmail.net), Young-Chun Kim(minsun0917@nambu.ac.kr)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인권 인식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사회통합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인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인권 인식 또한 사회통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권 인식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 인식은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는 인권 인식과 사회통합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진다면 사회통합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중심어 : | 장애인서비스 제공자 | 인권 인식 | 사회적 지지 | 사회통합 |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verify the effects of disability service providers'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support on social integration. In addition to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hen human rights awareness are recognized impact on social integration and verifi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social integration.

In result, First, human rights awareness i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support, Second, on human rights awareness also i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integration. Third, social support has been identified as affecting social integration, Under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ppeared to affect human rights awareness recognized indirectly in social integration. This the human rights awareness affects directly social integration,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s mediators in the process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integration.

Therefore, If a disability service providers made the correct recognition for human rights and social support can be seen that social integration can be achieved.

■ keyword : | Disability Service Providers | Human Rights Awareness | Social Support | Social Integration |

I. 서론

인간은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의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타인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규범, 가치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나 사회의 대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문화적, 인종적 특성이나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고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의 존엄성 회복과 공동체의 물질적 풍요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발전을 위한 개발 전략 중의 하나로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며[15],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인간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타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배려와 타협을 통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부족한 사회적 현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물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아동[31], 교사[24], 보육교사[8][14][18][22][29][30][34], 유아교육기관[28],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11], 대학생[19][40] 등 개별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인간이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나 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신체적·정서적인 건강상의 문제, 위기 등의 적응상의 문제, 사회적 분리, 독립 등으로 야기된 무력감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우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사회적 지지와 같이 자연발생적인 지원체제에 의해 형성된 인위적인 지원체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등의 사회제도화 되어져 있는 지원체제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0][37]. 또한 인권인식 및 태도에 가족, 친구,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등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2][16][38].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은 지원체제를 어떻게 동원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성공적인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네트워크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36].

따라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사회적 통합이 이루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산재취약계층[17], 노인[6], 지체장애인[21], 정신장애인[35], 시각장애인[1], 여성장애인[33] 등 대부분이 서비스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서비스 제공자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권 인식과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통합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의 인권의 중요성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사회통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II. 이론적 논의

1. 인권 인식과 사회통합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인권의 개념은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인종·피부색·성·언어·종교·정치·재산·출생·지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자연법과 자연권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의미한다[3][4]. 즉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고, 소유해야 할 자연적 권리, 남녀, 빈부, 귀천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부여되어 있는 선천적 권리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고유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학자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속에 시작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번역되어 가장 널리 인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하여 인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장 보편적인 권리이며, 약자를 위한 권리이며, 이러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한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며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며,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하여 사회변화를 요구한다고 하였다[2].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에 대한 타인의 올바른 인식에 따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김지호(2011)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설의 특성이 인권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개인은 물론 집단, 국가의 전체의 인권의 발달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인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사회통합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

2. 인권 인식과 사회적 지지

심리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의식은 사고라고

불리는 추리와 판단의 작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식을 인식과 동일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개인의 내적인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심리상태로서 각 개인의 감정, 기억, 의욕, 환상, 행동의 동기 등 자기경험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사실들을 총칭하여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9]. 이러한 인간의 의식 활동은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적 능력과 타인은 물론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특히 인간의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유무형의 발전과 더불어 주변인과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적 성장과 더불어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의식은 인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의 외부세계에 대한 뇌의 이성적 작용에 의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외부 세계의 반영은 말이나 행동의 형태로 외부세계에 추리나 상상의 과정을 거쳐 또 다른 의식을 낳기도 한다[25].

인권 인식 및 태도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친구, 교사의 지지를 통해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며[12][38], 사회적 지지가 인권태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교사 지지, 자아 존중감, 친구지지의 순으로 변인간 인권태도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7].

또한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에서만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의 관계에서는 부(父)와 모(母)모두에게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16]. 따라서 인간의 인권 의식 및 태도의 형성에 가족, 친구, 교사 등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사회적 지지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체계, 즉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생태적 환경 내에서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지지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행위 또는 태도로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의도를 갖는다고 정의내릴 수 있다[5].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실제 상황에서 제공받은 지지 정도와 사회망의 구성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 및 욕구의 충족정도를 반영해 주고 자신의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유대감, 자신감, 신뢰감에 대한 지각의 정도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심리적 적응에 대한 입장에서 한 개인이 환경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 제공자는 개인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사회적 관계망에 들어있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웃, 동료, 상담자, 의사 등을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 보았다[32]. 또한 부모, 친구, 교사 등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태도를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였다[26].

사회통합은 인간이 다양한 사회집단을 구성하여 조화롭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구현과 더불어 정상적인 한 개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나 능력이 아닌 집단과 문화의 구조적 편견을 극복하고, 완전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로의 회복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통합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체계들의 지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산재 취약계층의 교육정도, 가족의 지지보다 동료, 친구 등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하였으며[17], 지체장애인은 가족, 친구 및 기타 사회적 지지, 사회서비스 경험, 정서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20],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친구 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 친구, 주변인 등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 장애인의 기능적 장애와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어느 정도 완충 및 감소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13],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의 지역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과의 선행 연구 결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등 변수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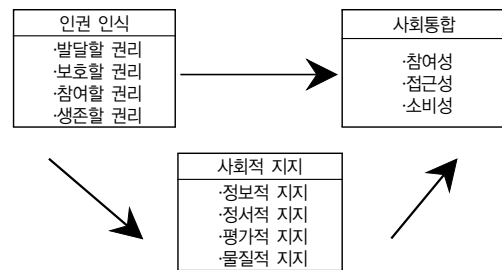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구성하였다.

- 가설 I.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II.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III.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 및 사회적 지지는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도구

2.1 인권 인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권 인식의 측정도구는 1989년 UN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Hart & Zeider(1993)가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현영렬(2009)이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발달, 보호, 참여, 생존할 권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인권 의식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총 13문항으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발달할 권리 4문항, 보호할 권리 4문항, 참여할 권리 3문항, 생존할 권리 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인권인식이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느 정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선수경(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지지보다는 개인에게 정보, 정서, 평가, 물질적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냐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구성은 4개의 하위요인으로 정보적 지지 5문항, 정서적 지지 3문항, 평가적 지지 3문항, 물질적 지지 3문항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2.3 사회통합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Segal & Aviram(1978)이 개발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Scale) 척도를 이은혜(2006)가 사용한 설문문항을 본 연구에는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 접근, 소비의 정도에 따라 사회통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참여성 2문항, 접근성 3문항,

소비성 3문항 등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조금 그렇지 않다'의 2점,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의 4점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통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인식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6일부터 4월 1일까지 4주간 G시 지역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장애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임의표집(convenience sampling)하여 구조화된 540부의 설문지로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한 후 무응답 및 응답이 불성실한 37부를 제외한 50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71	34.0
	여	332	66.0
연령	21세 ~ 29세	64	12.7
	30세 ~ 39세	231	45.9
	40세 ~ 49세	140	27.8
	50세 ~ 59세	62	12.3
	60세 이상	6	1.2
학력	고졸	192	38.2
	대졸	294	58.4
	대학원 졸	17	3.4
직장 유형	장애인복지시설	224	44.5
	학교(특수학교, 일반학교)	31	6.2
	기타	248	49.3
자격증 유형	사회복지사	293	58.3
	특수교사	39	7.8
	치료사	15	3.0
	간호사	8	1.6
근무 경력	기타	148	29.4
	1년 미만	203	40.4
	1년 ~ 3년 미만	97	19.3
	3년 ~ 5년 미만	51	10.1
	5년 ~ 10년 미만	94	18.7
직장 직위	10년 이상	58	11.5
	일반 직원	316	62.8
	중간관리자(팀장, 과장, 주임)	81	16.1
	실무책임자(부장, 국장, 교감)	19	3.8
	총 책임자(기관장, 교장)	19	3.8
	기타	68	13.5
합계		503	100.0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자 34%, 여자 66%로 남자보다 여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30대 45.9%, 40대 27.8% 순으로 3.40대가 전체의 73.7%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졸 58.4%, 고졸 38.2%, 대학원 졸업 3.4% 순으로 대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 유형에는 장애인복지시설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격증 유형으로는 사회복지사 58.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 경력을 살펴보면 1년 미만 40.4%, 1년 ~ 3년 미만 19.3% 순으로 나타나, 59.7%가 3년 미만의 짧은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직위는 일반 직원 62.8%, 중간관리자(팀장, 과장, 주임) 16.1% 순으로 나타났다.

4.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의 각 문항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사회통합 .86, 인권인식 .92, 사회적 지지 .98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신뢰도 분석

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인권인식	인권인식 전체	13	.92
	발달할 권리	4	.95
	보호할 권리	4	.93
	참여할 권리	3	.94
	생존할 권리	2	.77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전체	14	.98
	정보적 지지	5	.94
	정서적 지지	3	.96
	평가적 지지	3	.93
사회통합	사회통합 전체	8	.86
	참여성	2	.82
	접근성	3	.90
	소비성	3	.81

측정된 변수들이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주성분 분석 방법과 직교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인권인식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40개의 문항 중, 이론 구조와 다르게 적체된 27개 문항을 제외하고 발달할 권리, 보호할 권리, 참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등 네 개의 요인으로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54.99%를 설명하고 있다.

표 3. 인권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통성
	발달할 권리	보호할 권리	참여할 권리	생존할 권리	
인식2	.774	.031	.053	.106	.614
인식3	.717	-.099	.230	.082	.583
인식1	.660	.212	-.106	-.172	.521
인식4	.527	-.085	.253	.339	.464
인식39	.012	.733	-.006	.117	.551
인식40	.041	.649	-.004	.366	.557
인식38	-.024	.640	.192	.012	.447
인식33	.449	.499	-.011	-.231	.504
인식19	.045	.033	.812	.091	.671
인식20	.089	.134	.675	-.062	.485
인식18	.077	.005	.654	.036	.435
인식9	.056	.021	.020	.820	.676
인식8	.019	.275	.017	.751	.639
고유값	2.657	1.733	1.479	1.279	
설명분산	20.440	13.332	11.376	9.839	
누적분산	20.440	33.772	45.148	54.987	
문항 수	4	4	3	2	13

사회적 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지지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공통성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지지20	.705	.211	.084	-.173	.579
지지19	.704	-.015	.207	-.080	.545
지지18	.659	-.140	.264	.227	.575
지지21	.621	.432	-.281	-.088	.658
지지16	.619	-.010	.026	.364	.517
지지6	-.028	.712	.255	.008	.572
지지7	-.038	.668	.085	.244	.515
지지14	.301	.565	.004	.326	.516
지지4	.093	.272	.769	-.017	.674
지지3	.216	.010	.761	.131	.643
지지5	.043	.488	.510	-.084	.507
지지12	-.008	.111	.036	.734	.552
지지13	-.029	.204	-.009	.725	.568
지지17	.434	-.056	.088	.456	.407
고유값	3.350	1.793	1.516	1.171	
설명분산	23.927	12.806	10.825	8.365	
누적분산	23.927	36.734	47.559	55.924	
문항 수	5	3	3	3	14

25개의 문항 중 이론 구조와 다르게 적재된 문항을 11 문항을 제외하고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물질적 지지 등 네 개의 요인으로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55.92%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통합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20 개의 문항 중 이론 구조와 다르게 적재된 12문항을 제외하고 참여성, 접근성, 소비성 등 세 개의 요인으로 추출한 결과 전체 분산의 70.55%를 설명하고 있다.

표 5. 사회통합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1	요인 2	요인 3	공통성
	참여성	접근성	소비성	
통합19	.989	.113	.068	.995
통합15	.989	.113	.068	.995
통합12	.064	.825	.096	.694
통합13	.052	.755	-.014	.572
통합11	.108	.720	-.025	.531
통합7	.082	.011	.843	.719
통합6	-.063	.228	.741	.606
통합8	.117	-.164	.702	.533
고유값	2.414	1.684	1.546	
설명분산	30.176	21.049	19.323	
누적분산	30.176	51.225	70.548	
문항 수	2	3	3	8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4.0을 사용하여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권의식,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등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가설검증

1. 주요 변수의 특성 및 상관관계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고 있는 인권 의식,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장애인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인식 평균은 3.14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3.16, 사회통합 3.08로 나타났다.

표 6.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인권 인식	3.14	.501	.109	.217
발달할 권리	3.10	.763	.109	.217
보호할 권리	3.18	.744	.109	.217
참여할 권리	3.13	.819	.109	.217
생존할 권리	3.17	.972	.109	.217
사회적 지지	3.16	.536	.110	.219
정보적 지지	3.17	.760	.109	.218
정서적 지지	3.15	.842	.109	.217
평가적 지지	3.15	.835	.109	.218
물질적 지지	3.19	.776	.109	.218
사회통합	3.08	.630	.109	.218
참여성	2.99	1.143	.109	.218
접근성	3.12	.927	.109	.218
소비성	3.10	.903	.109	.217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사용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예측된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변수간의 상관관계

	1	1-1	1-2	1-3	1-4	2	2-1	2-2	2-3	2-4	3	3-1	3-2	3-3
1. 인권 인식	1													
발달할 권리	.689**	1												
보호할 권리	.676**	.210**	1											
참여할 권리	.577**	.229**	.135**	1										
생존할 권리	.505**	.129**	.234**	.103*	1									
2. 사회적 지지	.443**	.208**	.374**	.301**	.202**	1								
정보적 지지	.256**	.122**	.189**	.191**	.133**	.755**	1							
정서적 지지	.363**	.101*	.354**	.222**	.234**	.660**	.226**	1						
평가적 지지	.248**	.101*	.194**	.241**	.069	.641**	.264**	.382**	1					
물질적 지지	.381**	.264**	.345**	.160**	.132**	.598**	.274**	.283**	.160**	1				
3. 사회통합	.329**	.230**	.296**	.096*	.170**	.351**	.186**	.326**	.298**	.187**	1			
참여성	.191**	.180**	.141**	.018	.119**	.155**	.011	.263**	.075	.126**	.635**	1		
접근성	.109*	.091*	.098*	.030	.037	.181**	.145**	.098*	.230**	.023	.674**	.199**	1	
소비성	.341**	.171**	.334**	.142**	.184**	.343**	.196**	.293**	.262**	.224**	.631**	.131**	.063	1

주: *p<.05, **p<.01

인권 인식(r=.329)은 사회통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소비성

($r=.341$), 참여성($r=.191$), 접근성($r=.109$)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지지($r=.351$)는 사회통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소비성($r=.343$), 접근성($r=.181$), 참여성($r=.155$)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2. 가설검증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I 은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표 8].

인권 인식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22.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할 권리($\beta=.304$), 참여할 권리($\beta=.233$), 생존할 권리($\beta=.099$)가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p<.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인식 전체도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beta=.443,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할 권리, 참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및 인권 인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타인과의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인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t	β	t
발달할 권리	.081	1.935		
보호할 권리	.304	7.289***		
참여할 권리	.233	5.653***		
생존할 권리	.099	2.406**		
인권 인식			.443	10.996***
R ² .221		R ² .197		
R ² change .214		R ² change .195		
F 34.724***		F 120.903***		
Durbin-Watson 1.949		Durbin-Watson 1.901		

주: ** $p<.01$, *** $p<.001$

가설 II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표 9]. 인권 인식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1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할 권리($\beta=.236$), 발달할 권리($\beta=.162$), 생존할 권리($\beta=.091$)가 유의미한($p<.05$)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인식 전체도 유의미한($\beta=.329,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할 권리, 발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및 인권 인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인권 인식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t	β	t
발달할 권리	.162	3.644***		
보호할 권리	.236	5.319***		
참여할 권리	.018	.413		
생존할 권리	.091	2.083*		
인권 인식			.329	7.751***
R ² .124		R ² .108		
R ² change .117		R ² change .106		
F 17.469***		F 60.079***		
Durbin-Watson 2.026		Durbin-Watson 2.021		

주: * $p<.05$, ** $p<.01$, *** $p<.001$

가설 III은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 및 사회적 지지는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표 10].

인권 인식과 사회적 지지를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beta=.265$), 인권 인식($\beta=.195$) 모두 사회통합에 유의미한($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구분	β	t
인권 인식	.195	4.203***
사회적 지지	.265	5.717***
R ² .154		
R ² change .150		
F 44.469***		
Durbin-Watson 1.973		

주: *** $p<.001$

지금까지 3단계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인권인식, 사회적 지지 및 사회통합 간의 매개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통계량
사회적 지지	인권 인식	.443	10.996***	R ² .197 F 120.903***
사회통합	인권 인식	.329	7.751***	R ² .108 F 60.079***
사회통합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	.195 .265	4.203*** 5.717***	R ² .154 F 44.469***

주: ***p<.001

우선 독립변수인 ‘인권 인식’이 종속변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β=.329, p<.001),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443, p<.001).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인권 인식(β=.195, p<.001)과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β=.265, p<.001) 모두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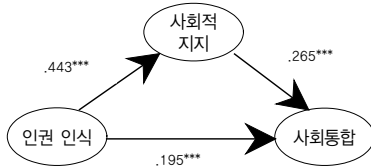


그림 2 매개효과 검증의 결과

인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443이며,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정도는 .265이다. 인권 인식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95이며, 사회적 지지를 경유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는 ‘.443×.265=.117’이다. 총 인과적 효과는 직접효과 .195 + 간접효과 .117로서 .312이다. 결국 세 번째의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사회통합에 대한 독립변수인 인권 인식의 효과가 두 번째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작게 되므로 인권 인식이 사회통합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부분매개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사회통합은 인권 인식의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의 정

도에 따라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인권 인식 → 사회통합	.195***	.117***	.312***

주: ***p<.001

따라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Sobel 검증방법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Z\text{-value} = a*b/\text{SQRT}(b^2*sa^2 + a^2*sb^2)$$

위의 공식을 활용한 검증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인권 인식 → 사회적 지지 → 사회통합	4.41129617***

주: ***p<.001

Sobel 검증결과 인권 인식 → 사회적 지지 → 사회통합 경로의 Z값은 4.411로 나타나 p<.001수준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인권 인식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식하는 인권인식, 사회적 지지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할 권리, 참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등 인권 인식의 하위요인과 인권 인식 전체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할 권리, 참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및 인권인식 전체 등 인권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성남(2008)과 전준현(2011)의 연구와 같이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정립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할 권리, 발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등 인권 인식의 하위요인과 인권 인식 전체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보호할 권리, 발달할 권리, 생존할 권리 및 인권 인식 전체 등 인권을 높게 인식할수록 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권 인식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성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방대혁(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사고와 가치체계를 통해 다양한 비인간적인 형태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인지하는 인권 인식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권 인식은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권 인식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 지지 또한 사회통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변수를 통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공식 및 비공식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며, 특히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영향을 받은 사회적 지지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서비스 제공자가 지각하는 인권 인식, 사회적 지지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서비스 제공자들의 인권 인식의 함양과 사회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교육이 선행되어 인권에 올바른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가족, 서비스 제공

자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타인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 소모임 활동 활성화,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 조직 구성원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을 위한 조직의 리더가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지지가 이루어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 불평등 등 사회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해 차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 인식 및 인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한다면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연구자가 임의표집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의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표집대상 선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우진, 장애인 사회통합에 관한 요인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2]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 [3] 김녕,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권교육 교사 워크숍 자료집, 2000.
- [4] 김진, 도덕과 교육에서 인권교육 방안 연구, 한국

- 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5] 김명숙,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6] 김병학, *교회의 노인교육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7] 김선오, *재가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1999.
- [8] 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교육학회, 제12권, 제4호, pp.299-323, 2008.
- [9] 김승한, *의식개혁과 평생교육*, 현대사회, 1981.
- [10] 김정유, 최유석, “사회적 지지가 중소도시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4호, pp.208-219, 2015.
- [11] 김지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2] 김혜정,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13] 노정숙,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4] 류수정,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5] 문형표, “사회통합의 의의 및 정책적 과제,” 사회복지 94겨울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4.
- [16] 박봉규,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17] 박수경, *산업재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18] 박연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아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 수행정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19] 박형원, “클라이언트 권리옹호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5호, pp.365-374, 2015.
- [20] 방대혁, *대학생의 인권인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1] 변소현, *장애인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22] 서유림, *영유아권리에 대한 보육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3] 선수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24] 심성보,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
- [25] 심용섭, *초등교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26] 오성희,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7] 유성남,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28] 윤진희,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29] 이미래,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아동 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30] 이미숙, *영유아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 및 교사 인식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31] 이소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 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32] 이은복, *장애인 근로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작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3] 이은혜, *여성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34] 이지영, *영아의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35] 이지훈, *일반가정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도덕성 발달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36] 이철수, *사회복지학사전*, 헤민북스, 2009.
- [37] 전원희, 조명주, 나현주, “간호대학생의 분노표현 방식, 사회적 지지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219-228, 2015.
- [38] 전준현, *사회적 지지와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39] 현영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인식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40] 홍선우, 김지수, 현혜진,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6호, pp.260-269, 2011.
- [41] S. Hart and M. Zeidner,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Vol.1, pp.165-188, 1993.
- [42] S. Segal and U. Aviram, “The Mentally Ill in Community-Based Sheltered Care: A Study of Community Care and Social Integration,” New York: Wiley, 1978.

저 자 소 개

김진연(Jin-Youn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11년 2월 :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3년 7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노인복지, 기독교복지

김영춘(Young-Chun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4년 2월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1년 2월 :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행정, 지역복지, 장애인복지